



많은 주민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전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가 한가지 남아 있다. 즉 이 나라는 전국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전이 이 나라의 직업처럼 잦아졌으며, 이와 같은 정전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7일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6억 2000만타카(Taka)(1550만 달러)의 수도 다카(Dhaka)의 긴급 배전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3. 전력생산 설비의 부족

전력사업의 레이스에 있어서 방글라데시는 자기 자신과 이웃 나라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즉 뒤따라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에너지성은 20~30억달러의 외국투자 유치를 이룩할 수 있을지라도 전력의 부족상태는 1999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세인 장관은 이와 같은 금액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투자금액으로서 큰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모두 최근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전력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협정을 발표한 바 있다.

전력부문에서 민간투자를 금지해오던 방글라데시는 앞서가고 있는 이웃나라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9월 중순에 각의는 전력부문을 관장하는 국영 전력개발청(Power Development Board : PDB)이 거의 독점해오던 전력사업 체제에 중지부를 찍는 에너지성의 전력사업 개편계획을 승인하였다. 다카 전력공급청(Dhaka Electric Supply Authority : DESA)은 수도에 대한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어촌전화청(Rural Electrification Board : REB)은 농어촌 지역의 배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 방글라데시의 발전설비 용량

방글라데시의 공식 국호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이며, 수도는 다카(Dhaka)이다. 국토면적은 143,998km², 인구는 1989년 현재 1억 1029만명이다. 1993년도 유엔 통계연감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의 1991년도 총 발전설비 용량은 269만kW이며, 화력 246만kW, 수력 23만kW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력발전설비 중 34만kW는 자가발전설비이다.

2. 새로운 전력정책

방글라데시의 에너지성 모샤라프 호세인(Mo-sharrarf Hossain) 장관은 자기 자신이 성취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제는 후회하고 있다. 그의 업적이란 전국적인 송전선로 확장계획으로 이 나라의 더

4. 파워 셀의 설치

이 개편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성에 설치되는 파워 셀(Power Cell : PC)이 전력사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게 되며,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의 세부사항이 곧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관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공포되면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이 전력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다. 국제 금융기구들은 전력부문이 생산된 전력의 거의 반을 도전과 요금징수의 태만 그리고 잘못된 선로구성에 의하여 잃어버리고 있다는 전력사업의 경영방만을 이유로 1990년 4월에 방글라데시의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공여를 중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력부문의 개발을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였었다.

5. 전력 시스템 손실

도시 지역의 전력 시스템 손실이 1990년의 41%에서 지난 해에는 36%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이것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인도의 선로손실은 28%이며, 파키스탄은 24%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에서는 총 송전전력량의 25% 정도의 시스템손실이면 그런대로 수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력손실 방지를 위하여 에너지 개편 프로그램에서는 PDB와 DESA로 하여금 전력량계의 검침,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서 발행 그리고 수금을 위하여 민간 대행기관을 지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PC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감독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부정행위와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6. 또 다른 문제들

그러나 시스템 손실은 전력부문의 문제들 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가동중단 발전소와 PDB 내의 비능률과 부패는 실질적인 발전용량을 150만 kW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수요에 비하여 25만kW가 부족한 것이다. 에너지성은 전력부문이 2000년에 거의 400만kW의 최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5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나라는 이제 막 이 목표를 향해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각각 21만kW 용량의 발전소 셋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다. 일본은 용량이 작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의 연화 차관을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180만kW의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7. 투자자들의 요구조건

그러나 호세인 장관도 가까운 장래에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확실한 제의서를 충분히 받게 될 것 인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17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2건만 양해각서가 서명되었으며 그 나머지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의 간부는 “투자자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료 : 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10.13
2. EIU Country Report : BANGLADESH, 1993/94